

# 전남 드래곤즈, 젊은피 수혈...신·구 조화로 '승격' 노린다



정태인 성운수 류광현 홍진민

## 미드필더 정태인, 골키퍼 성운수, 수비수 류광현·홍진민 영입 김용환·유진홍·전유상과 재계약... 팀 전력 강화 위해 최선

전남드래곤즈가 2000년대생 신예 선수들로 젊은 피를 수혈했다.

전남은 우선지명 선수인 중앙대 정태인(MF·19)과 함께 성운수(GK·21), 류광현(DF·21), 홍진민(DF·19) 등 4명의 신예 선수를 영입했다.

중앙미드필더인 정태인은 서울YS FC-경신중을 거쳐 전남U18인 광양제철고에서 활약했다. 우선지명 후 중앙대에 진학한 정태인은 1학년을 마친 뒤 프로팀 콜업을 받았다.

원발잡이인 정태인은 볼 소유, 연계플레이,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다. 또 U18 당시 전남 키커로 활약하는 등 각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여의도고-갈빈대 출신의 성운수는 K4의 세종바네스(現FC세종)에서 1시즌을 보낸 뒤 2024년 인천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187cm의 장신인 그는 긴발을 활용한 공중볼 처리가 좋다. 성운수는 재계약을 한 최봉진과 광주에서 이적한 이준과 전남 골문을 지키게 된다.

강원 U18팀인 강릉제일고 출신의 류광현은 호남대를 거쳐 2023시즌 강원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데뷔 시즌 U22 자원으로서 K리그1에서 11경기를 소화했던 그는 지난 시즌에는 코리아컵에서 2경기를 뛰었다. 류광현은 왼발을 사용하는 풀백 수비수로 왼쪽 측면에서 보여주는 저돌적인 움직임이 강점이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홍진민은 광주 U15와 수원 U18(매탄고) 출신으로 2024시즌 자유계약으로 충남아산FC에 입단했다.

190cm, 85kg의 뛰어난 피지컬의 홍진민은 제공력과 볼 소유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앞서 준프로 손건호(MF·18), 우선지명 이동현(FW·19)과 프로 계약을 한 전남은 지역인재 선발로 유경민(FW·21)과 신인 계약을 맺었고, 대전에서 정강민(DF·20)을 영입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은 재계약을 통해 신구조화도 꾀했다.

전남은 베테랑 수비수 김용환(31), 유진홍(DF·23), 전유상(MF·20)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팀 내 최고참인 김용환은 스피드와 수비력을 갖춘 우측 풀백으로 지난해 24경기에 출전해 전남 진영을 지켰다.

인천, 포항, 김천을 거쳐서 지난해 팀에 합류한 김용환은 재계약을 하면서 전남의 '승격' 도전에 힘을 보탠다.

유진홍은 양쪽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풀백 자원으로 고양KH-평택시티즌(이상 K4)을 거쳐 지난해 전남에 입단했다.

179cm, 73kg의 다부진 체격을 갖춘 유진홍은 지난해 K리그2 1경기, 코리아컵 2경기에 출전한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줬다.

전유상은 제29회 차범근축구상 대상 수상자인 유망주로 저돌적인 드리블과 득점력이 돋보이는 2선 자원이다.

지난해 5월 12일 부천FC와의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이 경기에서 데뷔골까지 장식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미드필더' 권성윤 영입

윙어·풀백·윙백 등 멀티플레이어... 다양한 전술 구사 기대

광주FC가 미드필더 권성윤(23·사진)으로 중원에 스피드를 더한다.

광주는 9일 FC서울과 부산아이파크 등에서 활약한 권성윤을 영입했다.

오산중-오산고 출신인 권성윤은 2019년 춘계고등연맹전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장식하는 등 팀의 우승 주역으로 눈길을 끌었고, 연령별 대표팀에도 꾸준히 발탁됐다.

2020년 서울 우선지명을 받아 프로에 데뷔한 권성윤은 2023년 대전코레일, 2024년 부산아이파크에서 뛰면서 47경기 1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권성윤은 볼소유, 탈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기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며, 순간 스피드와 개인기를 앞세운 돌파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또 윙어뿐만 아니라 풀백, 윙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다.

광주는 권성윤으로 측면 템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전술 구사도 노리게 된다.

권성윤은 "광주는 조직력이 뛰어나고 확실한 색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다. 광주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토틸 양민혁, 등 번호 '18번' 달고 뛰다

'캡틴' 손흥민이 활약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틸의 일원이 된 2006년 생 공격수 양민혁이 등번호 18번을 달고 뛰다.

양민혁은 9일 열린 2024-2025 리그컵(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리그1 강원FC에서 맹활약을 펼친 양민혁은 2024시즌 중인 지난해 7월 토틸 입단이 확정되며 화제를 모았다. 양민혁은 지난해 중순 영국으

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적응을 시작했고, 이날 처음으로 공식전 벤치에 앉았다.

토틸은 이날 소셜 미디어에 'min-hyeok'이라는 이름과 등번호 '18번'이 새겨진 양민혁의 유니폼 사진을 올려 첫 명단 등록을 축하했다.

18번은 세계적인 골잡이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이 2014-2015시즌 사용했던 번호다. 지난해 시즌엔 현재 스페인 레알 베티스 소속인 미드필더 조바니 로셀소가 토틸에서 18번을 썼다. /연합뉴스

## 2025 새해 이렇게

### '전문·생활체육분야 저변확대' 앞장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세계양궁대회 성공 개최  
생활·전문체육 활성화 노력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회장 강기정 광주시장)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을 밝혔다.

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2024파리패럴림픽 금메달 1개를 포함한 7개 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2년 연속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5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한상득 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7만여 장애인의 건강파트너로서 '전문·생활체육분야 저변확대' 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 수석부회장은 올해 9월 열리는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을 계기로 장애인양궁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저변 확



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장애인체육선수 일자리 발굴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22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명을 시작으로 한전KPS, 한국광기술원, 한국알프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70여명의 장애인체육선수 일자리를 발굴했다.

한 수석부회장은 "더 많은 선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선수관리에 힘쓰고, 관리인력 및 전문체육지도자 추가 채용 등을 통해 장애인체육 행정서비스 질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탁구·양궁·사격 실업팀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힌 그는 생활체육 활성화 전면에 대한 계획도 전했다.

한 수석부회장은 "광주시는 자치구 중심의 생활체육사업 추진으로 2024년 생활체육 지원사업 종합 성과 광역시 1위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자치구별 특색있는 맞춤형 생활체육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2기 발전위원회와 민간 후원 조직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선수와 학생선수의 장학금 지급 등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홍보 활동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힘쓸 것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체육 증진·인프라 확충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확대

전남도 장애인체육회(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장애인 체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2024 파리패럴림픽에서의 선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원정 최다 메달 획득 등을 이뤄낸 눈부신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박정현 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함께 누리는 도전과 기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25년 새해를 설계했다.

박 상임부회장은 "캠페인·SNS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해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월간소식지와 블로그 등을 통한 장애인 선



수 미담사래를 알려 장애인체육 홍보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통합체육의 증진과 인프라 확충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교실과 대회 운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장을 만들고 통합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물리·심리적 장벽을 없앤 배리어프리 환경 및 장애인 전용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또 "장애유형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체육서비스'를 확대해 재가 장애인의 참여 기회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전문 체육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도 드러냈다.

박 상임부회장은 "2024년 파리패럴림픽에서 이룬 전남 선수들의 뛰어난 성과는 우리 지역 장애인 체육의 발전 방향성을 보여주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었다"며 대표팀에 첫 메달을 안긴 사격 이윤리를 비롯한 태극 전사들에게 감사인사를 표했다.

그는 "도내 취업연계를 통한 장애인 선수 생활권 보장"과 "훈련 시스템 향상 및 메달리스트 포상 제도 개선" 등을 내세우며 전문선수 발굴과 육성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 2025-01-15(수)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즐거움

# 문화 산책